



채무인 경험 교류- 대만 - 사례 보고

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걷는 빛 청산의 길목에서

매 번 생각 나는 일, 그것은 바로 민국 92(2003)년 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。
지금 생각 해 보니 벌써 십 여년이 흘렀으나, 나의 기억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새겨
져 있는 일, 이런 고통의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
것이다.

내가 36세 되던 그 해, 일은 나의 친하게 알고 지내던 이모로 부터 시작 된다.
나와 이모는 알고 지낸 지 이미 7년이 되었고, 그 7년동안 서로 간의 왕래는 나로
하여금 무척 신뢰가 갔었다. 그 과정 중에 이모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보석상을 열라
고 권하였고, 처음엔 나도 동의치 않았다.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를 고려했기 때
문이며 그 당시 나는 그런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. 그래서 계속 미적 거렸지
만 민국 91년(2002년)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께서 자금을 대어 주셔서
92(2003)년 초에 가게를 열게 되었다 나중에 가게를 열 요기가 난 것은 이모가
나에게 너는 단지 가게 문만 열면 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걱정하지
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. 나는 보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모든것을 이모 말만
듣고 그렇게 92(2003)년에 가게 문을 열게 되었다 시작하는 과정 중 이모는
나에게 가게를 열면 자기의 돈으로 물건을 좀 사야 한다고 했고, 나는 그 말에 의심
이 없이 물건을 조금 사들였다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라고 하면서
나의 악몽은 시작 되었다 처음엔 갖은 방법을 다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, 점
점 더 빚이 늘어났으며, 나의 부담 또한 점점 더 많아졌고,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
맞지 않는 상황 아래, 은행 대출금은 점차적으로 감당 할 수 없었으며, 어렵게 유
지하던 중 2년째 문을 닫게 되었다.



그러나 문을 닫으면서 부터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었다. 은행은 독촉하기 시작하였고, 매일 은행으로 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왔다. 나는 전화 소리만 울려도 겁을 먹기 시작했고, 무서워서 전화도 받지 못했다. 왜냐하면 그 때의 부채는 최소 대만 돈 5백만원 이상이었고, 그로 인해 나는 가족들에게 까지 힘들게 부모님이 일생동안 모은 피 같은 돈을 모두 쏟아 부었으며, 뿐 만 아니라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신용 파산이 되게 하였다.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차압 될 뻔 하였고 나 역시 이런 자책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쓰러지게 이르렀다 그 해에 몇 번이나 병원에 들락 거렸던가? 게다가 그 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할 지 몰라서 여기 저기 다니며 자문을 구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한결 같지 않아서 누가 말하는 것이 옳은 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몸을 숨기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었고 어디를 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 몰라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졌으며 전화조차 받을 수 없었다. 밤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악몽을 꾸었고, 이런 과정이 몇 년이나 계속 되었다.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어떻게 살았는 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. 정말이지 조그만 실수로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컸다.

이 일은 9 2 (2003)년 가게를 열면서 부터 시작하여 9 3 (2004)년 문을 닫을 때까지 악몽처럼 나를 따라 다녔고, 1 0 5 (2016년)년 1 2 월 초 , 여동생이 미국에서 커 윈저 (柯文哲) 시장의 페이스 북을 보고, 그 곳에서 법률 구조 공단의 정보를 알게 되어 미국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. 나더러 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나는 법률 구조 공단에 전화를 하였고, 거기서 내게 1 2 월 2 5 일날 설명회가 있으니 현장에 와서 들어보라고 하기에 나는 가서 듣게 되었다. 그제서야 이런 단체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, 당일날 바로 신청하여 나의 채무 청산 과정이 시작되었다. 정말 운 좋게 법률 구조 공단의 인도하에 변호사와 함께 노력한 지 일 년 넘게 되었고, 올해 2월 말에 청산과 면책이 통과되어서 결국 10년 넘은 악몽이 끝나게 되었다. 정말이지 법률구조 공단의 변호사,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10년 넘은 채무의 인생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었다.